

# 국민과 언론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중재위원회



Reda'e Halefom Weldeselassie  
에티오피아 통신사(ENA) 편집국장

관훈클럽과 한국언론진흥재단(KPF)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0개국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2012 관훈-KPF 프레스 펠로십'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 중 한 명으로서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과 성공 스토리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공식적인 일정에는 없지만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의 해결방식에 대한 식견을 얻고자 관훈클럽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하여 줄 것을 부탁했고, 관훈클럽의 요청을 언론중재위원회가 기꺼이 수락해줌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단체·기관의 권익과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배웠다. 즉,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으로 하여금 잘못된 보도, 비현실적인 보도, 편파적인 보도를 자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은 언론이 스스로 신뢰를 지켜 그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한 지원자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위원회를 방문해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언론 피해자가 위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든지 구술에 의해 신청서 작성의 도움을 받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방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18개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 중재부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설치돼 있다. 이들 지역중재부가 국민들의 접근성을 더욱 쉽게 하고 조정중재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것은 거듭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놀랍게도 위원회는 조정과 중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처럼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이 14일 이내에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위원회를 이용한다면 양 당사자인 언론사와 피해자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수가 늘어나는 원인이 바로 언론매체의 종류와 수가 늘어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권익과 자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 또한 신청사건 수를 늘어나게 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이 오랜 역사에 걸쳐 쌓아온 위원회의 좋은 취지를 약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에티오피아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제3자의 입장에서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는 독립적인 분쟁해결기관이 없다. 다만 에티오피아 방송청에서 방송보도를 대상으로 잘못됐거나 불공정한 사항을 심의하여 바로잡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과 뉴미디어의 잘못된 보도를 담당하는 특정한 기구가 없어, 언론분쟁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해결된다. 물론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정부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일종의 신문평의회와 같은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할 것을 널리 요구하여 왔으나, 아직 언론사들은 신문평의회를 비롯한 어떠한 기구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건전한 언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에 도움을 주는 한편 국민의 권익과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상담과 조정중재 절차를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이 처리돼 양 당사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었다. 이번 교육이 실용적인 언론분쟁 해결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나라에서 온 기자들에게 무척 유익한 강의였다고 생각한다. 

•번역: 정승희(홍보팀)